

“광주에서 다문화 아동 키우기 여전히 힘들어요”

광주 서구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진로설계지원 프로그램’ 가보니
베트남·러시아 등 13가족 20명 ‘언어·시선의 장벽’ 호소
가정통신문 이해 못하고 공부 도움 받기 힘든 현실 여전
학교·사회 적응 위해 국가 차원 체계적 지원·인권교육 절실

“광주에서도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아요. 가정통신문은 대부분 한국어라 이해하기 힘들고, 국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피부색 때문에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지난 8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광주서구 가족센터가 개최한 ‘2025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진로설계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아직 광주에서 다문화 아동을 키우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은 광주시 서구에 거주하는 4개국(베트남·필리핀·중국·러시아) 13가족 20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참가했다. 이들 자녀의 학부모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언어와 시선의 장벽’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우려를 안고 있었다.

13년 전 한국에 온 필리핀 출신 정은혜(31)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은 지난 1~4학년까지 친구를 사귀지 못해 많이 외로워했다”며 “아들도 피부색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해 마음이 안 좋았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결혼 후 6년 전 아내·딸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최정민(46)씨도 “아이가 다행히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사교성도 뛰어나지만, 외모 탓에 필요 이상으로 주목받는 일이 많아 부모로서 걱정이 된다”며 “주변에서 ‘너는 러시아사람인데 왜 러시아 말을 잘 못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 무심한 질문이지만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크더라’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KOSIS)에 따르면 광주시 다문화가구 수는 2020년 7742가구에서 2024년 8970가구로 늘었다. 전남 지역은 같은 기간 1만4626가구에서 1만6999가구로 증가했다.

이에 맞춰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높아지는 추세다. 여성가족부가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온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3.38점으로 2021년(52.27점) 대비 1.11점 높아졌다.

반대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이주배경 고등학교 2만1527명 중 자퇴한 사람은 모두 477명

(2.22%)로 집계됐다.

자퇴생 비율은 2020년 1.36%, 2021년 1.93%, 2022년 1.99%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3년 처음으로 2%대를 돌파했다.

이주배경 학생의 자퇴 사유로는 ‘학교 부적응’이 가장 많았다. 2020년 77명, 2021~2022년 138명, 2023년 206명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퇴서를 냈다.

아이들은 이중 언어로 인해 혼란을 겪는 모습도 보였다. 베트남 국적 어머니를 둔 A(12)군은 “엄마가 한국어가 많이 서툴고, 나는 베트남어를 잘 몰라서 외계어처럼 느껴진다. 엄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러시아 출신 어머니 아래서 태어난 B(8)양도 “엄마가 러시아어로 말하는걸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아 한국어로 대답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통신문이나 교과서 등이 온통 한국어로 돼 있는 등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교육·행정체계의 배려가 없다 보니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학교에서는 주로 모바일 앱(학교종이, 하이클래스 등)을 통해 가정통신문을 전달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부모를 통해 앱을 열어보니 온통 한국어 안내문밖에 볼 수 없었다. 일부 앱에서는 베트남어, 영어 등 언어 설정이 가능했으나, 정작 안내문 내용은 번역해 주지 않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다문화 학부모들이 자녀의 숙제나 수업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다.



지난 8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광주서구가족센터가 개최한 ‘2025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진로설계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복을 입고 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한국에서 17년째 거주하며 광주시 서구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방월주(41·중국)씨는 “외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한국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마음과는 달리 자녀 학업 뒷바라지에 소홀한 듯한 기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문화 학부모들은 다문화가정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자

녀가 자연스럽게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인권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양의 부모인 최씨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별적 언어와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체감 가능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교육 현장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9일 신안군 가거도에서 약 81km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서 98t급 중국어선 A호가 전복돼 해경이 구조하기 위해 선박으로 접근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가거도 인근 해상서 중국어선 전복…3명 실종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인 11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실종됐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VHF(선내 통신장비)를 통해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80여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8 t급 유망 중국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어선에는 총 11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8명은 해경과 인근에서 조업하던 다른 중국어선 등에 구조됐다. 나머지 3명은 실종 상태다.

또 구조된 인원 중 2명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

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6명은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

이날 발생한 사고는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으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사는 어선이 속한 나라인 중국에서 담당한다.

당시 사고 해역 기상 상황은 초속 8~10m, 파고 2m 수준으로 심한 악천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중국 해경이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수능일 큰 추위 없다

광주·전남 오늘 아침 6~11도

수능시험(11월 13일)이 치러지는 날, 광주·전남 지역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10일부터 이틀간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온은 평년(최저 4~10도, 최고 16~18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로 전날보다 4~8도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10일 낮 최고기온은 13~17도가 예상된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14~18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수능 날인 13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연세대 중간고사 AI 집단 커닝 ‘파문’

600명 중 200여명 부정행위

연세대 한 강의의 중간고사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 학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학생이 챗GPT 등 AI(인공지능)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수업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담당 교수는 최근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자수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접수만 0점 처리하고, 발뻠하는 학생은 학칙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자연어 처리와 거대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를 가르치는 이 수업은 약 600명이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원이 많은 만큼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중간고사 또한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치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달이 난 것이다.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험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객관식 문제를 푸는 식인데,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내내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

졌다. 시험 문제를 캡처하거나 화면 창과 프로그램을 계속 변동한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조교들과 함께 영상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한 것이다.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강생 사이에선 절반 이상일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한 수강생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양심껏 투표해보자”는 투표 글을 올렸는데 9일 기준 스스로 비수강생이라고 한 응답자를 제외한 387명 중 ‘커닝했다’가 211명, ‘직접 풀었다’가 176명이었다.

상당수는 부정행위 과정에서 AI를 몰래 쓴 것으로 추정된다.

생성형 AI가 대중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학가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AI 성능이 빠르게 고도화되며 학습 보조 도구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학교의 AI 사용 정책이나 윤리 기준 논의는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AI 의존도가 커지며 스스로 사고하는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AI 시대의 교육과 평가 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I의 적극적인 사용을 허용하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게 하자는 등의 제언이 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과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알바 댄스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SEoul METROPOLITAN POLICE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소해보험협회
Small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보험사기행위대응지원단